

성별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실태 및 직업적 특성

The Health Status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Gender of Migrant Worker in Korea

정혜선* · 김용규* · 김현리** · 이꽃메*** · 송연이**** · 김정희*****
현혜진***** · 이윤정***** · 김희걸*****

I. 서 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란 국내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노동의 대가인 임금, 급여,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이다(노동부, 2008b).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용어는 이주(migrant) 근로자 또는 이민(immigrant) 근로자라는 용어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아시아 이주근로자 센터(AMWC: Asian Migrant Workers Center)에서는 이주근로자(migrant worker)라는 용어를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용어보다 인격적이고 학술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홍승권 등, 2000).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이주라고 하는 단어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라는 용어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20여 년간 독일, 중동 등 각국으로 노동력을 수출하는 나라였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노동력을 수입하는 나라로 바뀌었다(설동훈, 1999). 주로 3D업종의 산업현장에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1991년 정부가 산업기술연수생

이라는 이름의 연수제도를 시행하면서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IMF 위기를 겪는 동안 일시적으로 감소하다가, 2000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노동인구가 고령화되고 여성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어서 경제적 생산인구 부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김희걸 등, 2005). 우리나라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2007년 12월 기준 476,179 명으로, 이 중 합법체류자가 411,272명(86.4%), 불법체류자가 64,907명(13.6%)이다(법무부, 2008). 이는 2007년도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23,993천명의 2%에 해당하는 인력이다(통계청, 2008).

이처럼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생산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율도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6년에 산재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는 3,406명이었는데 2007년에는 3,967명으로 16.4%가 증가하였다(한국산업안전공단, 2008). 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재 발생이 많은 것은 그들이 종사하는 직종이 영세 소규모 생산직이어서 산재 발생 가능성이 높게다가 한국어가 미숙하고 안전보건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한국산업안전공단, 2008).

정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빈번한 산재 발생과 이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 문경대학 간호과

접수일: 2008. 9. 26 심사일: 2008. 11. 19

*****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 강원대학교 간호학과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 경원대학교 간호학과(교신지자 E-mail: hgkim@kyungwon.ac.kr)

계재확정일: 2008. 11. 24

에 대한 사후조치 미비를 시정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제고를 위해 동영상, 책자, 스티커 등을 10개 외국어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한국산업안전공단, 2008).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율은 한국인 근로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황성호, 2006).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근로자는 국내에서도 남성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인데(정혜선, 2003), 외국인 여성근로자는 외국인이면서 동시에 여성이라는 이중의 어려움 속에 근무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복지환경을 조사한 김성훈(2003)의 연구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2005년에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노말렉산중독 사건은 외국인 중에서도 여성근로자들이 직업병 및 산업재해의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최근에는 외국인 여성이 결혼이민자로 국내에 들어와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여성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보건에 관한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과 보전에 관해 수행된 연구들은 건강상태 및 의료이용양상(박용우와 이행, 1997; 주선미, 1998; 홍승권 등, 2000), 근로조건 및 생활적응(김성훈, 2003; 김현리 등, 2006; 박달순, 2004; 허현주, 2001), 직업병 및 산업재해(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2003; 최재욱 등, 1999; 하은희 등, 2002; 홍윤철과 하은희, 1996), 산재보상(이연심 1996; 황성호, 2006) 등에 관한 것들로서, 성별 특성에 따른 실태를 파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남녀별로 구분하여 건강실태, 작업환경 및 산업안전보건특성과 화학물질 취급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와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무료진료하고 있는 서울, 경인, 충청지역의 9개 진료소를 방문하여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무료진료소에서 자료를 수집한 것은 불법 취업자의 경우에도 무료진료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장에 개별적으로 분포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접근하기 어려우나 무료진료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만나기가 용이하고, 통역원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방글라데시어 등으로 제작하였으며, 본 연구원이 직접 대상자에게 조사내용을 설명하고 조사에 동의를 얻은 후 인터뷰를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한국어로 조사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무료진료소에 배치되어 있는 통역원을 통해 조사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외국인 근로자는 총 413명이었으며, 이 중 남자는 274명(66.3%), 여자는 139명(33.7%) 이었다. 조사기간은 2005년 8월부터 11월까지 이었다.

2. 조사 내용

설문지는 외국인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직업적 특성, 건강행태, 작업환경, 안전보건실태, 화학물질 취급 실태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문헌고찰 등을 토대로 본 연구진이 초안을 작성한 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전, 건강, 작업환경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국적, 연령, 결혼여부, 거주형태, 최종학력, 한국어 능력, 비자유무의 8개 문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직업적 특성은 직장을 옮긴 횟수, 사업장 규모, 업종, 근로시간, 월평균급여, 교대근무, 육체적 부담정도 등의 7개 문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건강실태에 대하여는 흡연, 음주, 체중상태, 운동, 아침식사, 수면시간, 주관적 건강상태, 본국에서의 건강상태와의 비교, 과거질병 유무, 현재질병 유무, 현재질병명 등의 11개 문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작업환경은 조명, 소음, 반복작업, 무거운 물건 취급, 위험한 기계사용, 온도 등의 7개 문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안전보건실태는 건강진단 수진여부, 보호구사용여부, 안전보건교육 이수여부, 근무 중 다친 경험, 근무 중 다친 횟수, 치료비 부담주체의 6개 문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화학물질 취급실태는 화학물질 사용여부, 사용하는 화학물질명의 2개 문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3. 분석 방법

설문지는 SPSS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관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남녀별 비교는 χ^2 -test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남녀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총 413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인 경우가 43.3%로 가장 많았으며, 남자 중의 24.8%, 여자 중의 79.9%가 중국인 이었다. 평균연령은 31.9세로, 남자의 44.5%가 30~39세, 여자의 66.2%가 30세 미만이었다. 결혼상태는 미혼이 52.2%로, 남자는 기혼이 52.6%, 여자는 미혼이 61.6% 이었다. 거주형태는 회사 기숙사에 사는 경우가 50.0%로, 남자의 59.6%, 여자의 30.9% 이었다. 최종학력은 중·고등학교 졸업이 67.5%로, 남녀 모두 중·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으나, 남자는 대졸이상인 경우도 32.1% 이었다. 한

국어 능력은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경우가 53.4%로, 남녀 모두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비자가 있는 경우는 64.0% 이었으며, 남자의 53.3%, 여자의 84.8%가 비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모든 항목에서 남녀 근로자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2. 남녀별 대상자의 직업적 특성

대상자가 직장을 옮긴 횟수는 평균 2.3회로, 남자의 47.4%, 여자의 23.8%가 2회 이상 직장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하는 사업장의 직원 수는 평균 183명으로, 남자의 78.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여자의 59.3%가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업종은 제조업이 79.4%로, 남녀 모두 제조업에서 일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0.2시간으로, 남자의 44.9%, 여자의 19.2%가 12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하였다. 평균 월 급여는 94.1만원으로, 남자의 34.2%가 120만원 이상, 여자의 65.1%가 80만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

〈표 1〉 남녀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N(%))

항목	구분	전체* (N=413)	남자 (N=274)	여자 (N=139)	χ^2	p
국적	중국	179(43.3)	68(24.8)	111(79.9)	124.756	<0.000
	스리랑카	49(11.9)	48(17.5)	1(0.7)		
	방글라데시	50(12.1)	50(18.2)	0(0.0)		
	필리핀	30(7.3)	21(7.7)	9(6.5)		
	기타	105(25.4)	87(31.8)	18(12.9)		
연령	30세 미만	192(46.5)	100(36.5)	92(66.2)	40.539	<0.000
	30-39세	143(34.6)	122(44.5)	21(15.1)		
	40세 이상	78(18.9)	52(19.0)	26(18.7)		
결혼상태	기혼	197(47.8)	144(52.6)	53(38.4)	7.363	0.007
	미혼	215(52.2)	130(47.4)	85(61.6)		
거주형태	회사 기숙사	203(50.0)	161(59.6)	42(30.9)	112.202	<0.000
	월세	123(30.3)	94(34.8)	29(21.3)		
	전세	12(3.0)	7(2.6)	5(3.7)		
	기타	68(16.7)	8(3.0)	60(44.1)		
	초등학교 졸업 이하	35(8.7)	20(7.5)	15(10.9)		
중·고등학교 졸업	272(67.5)	160(60.4)	112(81.2)			
대학교 졸업 이상	96(23.8)	85(32.1)	11(8.0)			
한국어 능력	잘 못한다	89(21.9)	63(23.4)	26(19.0)	10.480	0.005
	간단한 의사소통	217(53.4)	129(48.0)	88(64.2)		
	원만한 의사소통	100(24.6)	77(28.6)	23(16.8)		
비자 유무	있다	261(64.0)	144(53.3)	117(84.8)	39.189	<0.000
	없다	147(36.0)	126(46.7)	21(15.2)		

* 무응답 제외

〈표 2〉 남녀별 대상자의 직업적 특성

(단위 : N(%))

항목	구분	전체*	남자	여자	χ^2	p
직장을 옮긴 횟수	1회	229(60.4)	133(52.6)	96(76.2)	19.675	<0.000
	2회	48(12.7)	39(15.4)	9(7.1)		
	3회 이상	102(26.9)	81(32.0)	21(16.7)		
사업장 규모	50인 미만	220(59.6)	193(78.5)	27(22.0)	158.386	<0.000
	50-300인 미만	67(18.2)	44(17.9)	23(18.7)		
	300인 이상	82(22.2)	9(3.7)	73(59.3)		
업종	제조업	313(79.4)	209(79.2)	104(80.0)	13.015	0.001
	건설업	29(7.4)	27(10.2)	2(1.5)		
	기타	52(13.2)	28(10.6)	24(18.5)		
근로 시간	8시간 이하	134(33.9)	48(18.1)	86(66.2)	89.833	<0.000
	9-11시간	117(29.6)	98(37.0)	19(14.6)		
	12시간 이상	144(36.5)	119(44.9)	25(19.2)		
월평균급여	80만원 미만	142(36.2)	58(22.1)	84(65.1)	75.157	<0.000
	80-100만원 미만	56(14.3)	39(14.8)	17(13.2)		
	100-120만원 미만	92(23.5)	76(28.9)	16(12.4)		
	120만원 이상	102(26.0)	90(34.2)	12(9.3)		
교대근무	한다	151(40.3)	78(30.4)	73(61.9)	33.391	<0.000
	안한다	224(59.7)	179(69.6)	45(38.1)		
육체적 부담정도	전혀 힘들지 않다	30(7.5)	11(4.1)	19(14.3)	50.355	<0.000
	견딜만하다	113(28.1)	53(19.7)	60(45.1)		
	힘들다	259(64.4)	205(76.2)	54(40.6)		

* 무응답 제외

났다.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는 40.3%로, 남자의 69.6%가 교대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여자의 61.9%는 교대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체적 부담은 힘들다고 한 경우가 64.4%로, 남자의 76.2%, 여자의 40.6%가 힘들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직업적 특성은 모든 항목에서 남녀 근로자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3. 남녀별 대상자의 건강실태

흡연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2.2%로 많았고, 남자의 61.0%, 여자의 94.2%가 흡연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음주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2.4%로, 남자의 50.4%, 여자의 86.1%가 음주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체중은 정상이라는 응답이 73.6%로, 남자의 73.2%, 여자의 74.5%가 정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운동은 전혀 안하는 경우가 58.1%로, 남자의 60.4%, 여자의 53.6%가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아침식사는 거의 매일 먹는 경우가 83.9%로, 남자의 82.3%, 여자의 87.1%가 거의 매일 먹는다고 응답하였다. 수면시간은 7~8시간인 경우가 48.3%로, 남자의 49.4%가 7시간 미만, 여자의 64.7%가 7~8시간

이라고 응답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인 경우가 53.1%로, 남자의 54.6%, 여자의 50.0%가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본국에서의 건강상태와 비교하였을 때 나빠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38.6%로, 남자의 40.7%, 여자의 34.5%가 나빠졌다고 응답하였다. 과거질병은 없는 경우가 91.1%로, 남자의 89.6%, 여자의 94.2%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현재질병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54.9%로, 남자의 45.9%, 여자의 72.5%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현재질병 중 근골격계질환이 46.5%로 가장 많았으며, 남자의 51.9%, 여자의 25.7%가 근골격계질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건강실태는 운동, 아침식사, 과거질병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남녀 근로자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4. 남녀별 대상자의 작업환경

작업환경에 대해 조명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22.7%로, 남자의 24.2%, 여자의 19.7%가 조명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소음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64.1%로, 남자의 65.9%, 여자의 60.3%가 소

〈표 3〉 남녀별 대상자의 건강실태

(단위 : N(%))

항목	구분	전체*	남자	여자	χ^2	p
흡연	안 피운다	296(72.2)	166(61.0)	130(94.2)	50.190	<0.000
	피운다	114(27.8)	106(39.0)	8(5.8)		
음주	안 마신다	254(62.4)	136(50.4)	118(86.1)	49.707	<0.000
	조금 마신다	135(33.2)	119(44.1)	16(11.7)		
	많이 마신다	18(4.4)	15(5.6)	3(2.2)		
체중상태	마른 편이다	76(18.6)	57(21.0)	19(13.9)	6.396	0.041
	정상이다	301(73.6)	199(73.2)	102(74.5)		
	살이 쪼 편이다	32(7.8)	16(5.9)	16(11.7)		
운동	전혀 안 한다	237(58.1)	163(60.4)	74(53.6)	5.755	0.056
	일주일에 1-2회 한다	104(25.5)	59(21.9)	45(32.6)		
	일주일에 3회 이상	67(16.4)	48(17.8)	19(13.8)		
아침식사	거의 매일 먹는다	344(83.9)	223(82.3)	121(87.1)	3.081	0.214
	가끔 먹는다	43(10.5)	29(10.7)	14(10.1)		
	전혀 안 먹는다	23(5.6)	19(7.0)	4(2.9)		
수면시간	7시간 미만	172(42.0)	134(49.4)	38(27.3)	23.228	<0.000
	7~8시간	198(48.3)	108(39.9)	90(64.7)		
	8시간 이상	40(9.8)	29(10.7)	11(7.9)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70(17.2)	52(19.3)	18(13.0)	6.135	0.047
	보통이다	121(29.7)	70(26.0)	51(37.0)		
	건강한 편이다	216(53.1)	147(54.6)	69(50.0)		
본국에서의 건강상태와의 비교	나빠졌다	158(38.6)	110(40.7)	48(34.5)	29.942	<0.000
	변화가 없다	179(43.8)	96(35.6)	83(59.7)		
	좋아졌다	72(17.6)	64(23.7)	8(5.8)		
과거질병	없다	370(91.1)	240(89.6)	130(94.2)	2.438	0.118
	있다	36(8.9)	28(10.4)	8(5.8)		
현재 질병	없다	223(54.9)	123(45.9)	100(72.5)	25.972	<0.000
	있다	183(45.1)	145(54.1)	38(27.5)		
현재 질병명†	소화기계	23(13.5)	12(8.9)	11(31.4)	16.341	0.001
	호흡기계	23(13.5)	20(14.8)	3(8.6)		
	근골격계	79(46.5)	70(51.9)	9(25.7)		
	기타	45(26.5)	33(24.4)	12(34.3)		

* 무응답 제외

† 현재질병명은 현재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함.

음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분진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63.1%로, 남자의 66.9%, 여자의 55.2%가 분진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복적인 작업은 72.7%가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자의 73.1%, 여자의 71.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경우는 55.8%로, 남자의 71.4%, 여자의 22.8%가 무거운 물건을 취급한다고 응답하였다.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는 41.4%로, 남자의 54.3%, 여자의 15.1%가 위험한 기계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작업장의 온도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7.6%로, 남자의 35.0%, 여자의 12.7%가 온도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자가 근무하는 작업환경은 분진, 무거운 물건

취급, 위험한 기계사용, 부적절한 온도의 항목에서 남녀 근로자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5. 남녀별 대상자의 안전보건실태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62.4%로, 남자의 63.0%, 여자의 61.1%가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안전장치나 보호구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64.3%로, 남자의 60.6%, 여자의 71.9%가 안전장치나 보호구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안전보건교육은 60.0%가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남자의 72.7%, 여자의 35.2%가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근무 중

〈표 4〉 남녀별 대상자의 작업환경

(단위 : N(%))

항목	구분	전체*	남자	여자	χ^2	p
부적절한 조명	그렇다	87(22.7)	62(24.2)	25(19.7)	0.994	0.319
	아니다	296(77.3)	194(75.8)	102(80.3)		
소음	그렇다	250(64.1)	174(65.9)	76(60.3)	1.159	0.282
	아니다	140(35.9)	90(34.1)	50(39.7)		
분진	그렇다	243(63.1)	174(66.9)	69(55.2)	4.983	0.026
	아니다	142(36.9)	86(33.1)	56(44.8)		
반복 작업	그렇다	274(72.7)	185(73.1)	89(71.8)	0.076	0.783
	아니다	103(27.3)	68(26.9)	35(28.2)		
무거운 물건 취급	그렇다	215(55.8)	187(71.4)	28(22.8)	80.210	<0.000
	아니다	170(44.2)	75(28.6)	95(77.2)		
위험한 기계 사용	그렇다	158(41.4)	139(54.3)	19(15.1)	53.546	<0.000
	아니다	224(58.6)	117(45.7)	107(84.9)		
부적절한 온도	그렇다	105(27.6)	89(35.0)	16(12.7)	21.022	<0.000
	아니다	275(72.4)	165(65.0)	110(87.3)		

* 무응답 제외

〈표 5〉 남녀별 대상자의 안전보건실태

(단위 : N(%))

항목	구분	전체*	남자	여자	χ^2	p
건강진단 수진	있다	149(37.6)	98(37.0)	51(38.9)	0.142	0.706
	없다	247(62.4)	167(63.0)	80(61.1)		
안전장치·보호구	사용한다	252(64.3)	160(60.6)	92(71.9)	4.768	0.029
	사용하지 않는다	140(35.7)	104(39.4)	36(28.1)		
안전보건교육	받았다	144(40.0)	65(27.3)	79(64.8)	47.116	<0.000
	안 받았다	216(60.0)	173(72.7)	43(35.2)		
근무 중 다친 경험	없다	319(80.6)	203(75.7)	116(90.6)	12.243	<0.000
	있다	77(19.4)	65(24.3)	12(9.4)		
근무 중 다친 횟수†	1회	34(55.7)	27(52.9)	7(70.0)	1.320	0.517
	2회	13(21.3)	11(21.6)	2(20.0)		
	3회 이상	14(23.0)	13(25.5)	1(10.0)		
치료비 부담방법	본인 부담	83(38.2)	56(48.3)	27(26.7)	16.240	<0.000
	보험으로 처리	24(11.1)	16(13.8)	8(7.9)		
	회사에서 부담	110(50.7)	44(37.9)	66(65.3)		

* 무응답 제외

† 근무 중 다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함.

다친 경험은 19.4%가 있다고 하였고, 남자의 24.3%, 여자의 9.4%가 다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다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다친 횟수는 평균 2.0회 이었으며, 남자의 52.9%, 여자의 70.0%가 1회 다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치료비는 회사에서 부담한 경우가 50.7% 이었고, 남자의 37.9%, 여자의 65.3%가 회사에서 부담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안전보건실태는 안전장치·보호구 사용, 안전보건교육, 근무 중 다친 경험, 치료비 부담방법에서 남녀 근로자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6. 남녀별 대상자의 화학물질 취급실태

화학물질을 취급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44.3%로, 남자의 36.6%, 여자의 60.0%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한다고 하였다. 톨루엔을 취급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9%로, 남자의 4.3%가 취급한다고 하였고, 여자 중에서는 취급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없었다. 아세톤을 취급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4.2%로, 남자의 5.9%, 여자의 0.8%가 취급한다고 응답하였다. 질산을 취급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4%로, 남자의 3.1%, 여자의 0.8%가 취급한다고 응답하였다. 납을 취급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6%로, 남자의 2.4%가 취급한다고 하였고, 여자 중에서는 취급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없었다. 수은을 취급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0.5%로, 남자의 0.4%, 여자

〈표 6〉 남녀별 대상자의 화학물질 취급실태

(단위 : N(%))

항목	구분	전체* (N=381)	남자 (N=256)	여자 (N=125)	X ²	p
화학물질 취급여부	취급	168(44.3)	93(36.6)	75(60.0)	18.565	<0.000
	미취급	211(55.7)	161(63.4)	50(40.0)		
톨루엔	취급	11(2.9)	11(4.3)	0(0.0)	5.553	0.018
	미취급	369(97.1)	244(95.7)	125(100.0)		
아세톤	취급	16(4.2)	15(5.9)	1(0.8)	5.372	0.020
	미취급	364(95.8)	240(94.1)	124(99.2)		
황산	취급	16(4.2)	15(5.9)	1(0.8)	5.372	0.020
	미취급	364(95.8)	240(94.1)	124(99.2)		
염산	취급	16(4.2)	15(5.9)	1(0.8)	5.372	0.020
	미취급	364(95.8)	240(94.1)	124(99.2)		
질산	취급	9(2.4)	8(3.1)	1(0.8)	1.982	0.159
	미취급	371(97.6)	247(96.9)	124(99.2)		
납	취급	6(1.6)	6(2.4)	0(0.0)	2.988	0.084
	미취급	374(98.4)	249(97.6)	125(100.0)		
수은	취급	2(0.5)	1(0.4)	1(0.8)	0.267	0.606
	미취급	378(99.5)	254(99.6)	124(99.2)		
니켈	취급	13(3.4)	13(5.1)	0(0.0)	6.598	0.010
	미취급	367(96.6)	242(94.9)	125(100.0)		
크롬	취급	13(3.4)	12(4.7)	1(0.8)	3.873	0.049
	미취급	367(96.6)	243(95.3)	124(99.2)		
벤젠	취급	27(7.1)	17(6.7)	10(8.0)	0.216	0.642
	미취급	352(92.9)	237(93.3)	115(92.0)		
알콜	취급	75(19.7)	15(5.9)	60(48.0)	93.929	<0.000
	미취급	305(80.3)	240(94.1)	65(52.0)		
신나	취급	50(13.2)	45(17.6)	5(4.0)	13.672	<0.000
	미취급	330(86.8)	210(82.4)	120(96.0)		
절삭유	취급	15(3.9)	15(5.9)	0(0.0)	7.655	<0.006
	미취급	365(96.1)	240(94.1)	125(100.0)		
기타	취급	31(9.0)	26(11.8)	5(4.0)	5.901	0.015
	미취급	315(91.0)	195(88.2)	120(96.0)		

* 무응답 제외

† 화학물질을 취급한다고 응답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함.

의 0.8%가 취급한다고 응답하였다. 니켈을 취급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3.4%로, 남자의 5.1%가 취급한다고 하였고, 여자 중에서는 취급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없었다. 크롬을 취급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3.4%로, 남자의 4.7%, 여자의 0.8%가 취급한다고 응답하였다. 벤젠을 취급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7.1%로, 남자의 6.7%, 여자의 8.0%가 취급한다고 응답하였다. 알콜을 취급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9.7%로, 남자의 5.9%, 여자의 48.0%가 취급한다고 응답하였다. 신나를 취급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3.2%로, 남자의 17.6%, 여자의 4.0%가 취급한다고 응답하였다. 절삭유를 취급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3.9%로, 남자의 5.9%가 취급한다고 하였고, 여자 중에서는 취급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없었다. 기타물질을 취급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9.0%로, 남

자의 11.8%, 여자의 4.0%가 취급한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자의 화학물질 취급여부는 남녀 근로자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취급하는 화학물질에서는 질산, 납, 수은, 벤젠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IV. 논 의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남녀별로 구분하여 건강문제, 작업환경 및 산업안전보건 실태와 화학물질 취급현황을 파악한 것이다.

조사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국적이 중국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법

무부(2008) 자료에 의하면 2007년 기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계 중국인이 50.7%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인이 8.5%, 필리핀인이 7.3% 등이었다. 주거는 회사 기숙사에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홍윤철과 하은희(1996)의 연구에서는 기숙사가 아닌 회사 내에서 숙식하는 경우가 56.7%인 열악한 상황이라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숙사에서 주거하는 경우가 더 많아 과거보다는 여건이 다소 좋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학력은 중·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았고, 남자는 대졸이상인 경우도 32.1%나 되었다. 홍윤철과 하은희(1996)의 연구에서도 대졸이상인 경우가 38.4%라고 하였으며, 김성훈(2003)의 연구에서는 40.2%, 허현주(2001)의 연구에서는 51.1%가 대졸이상이라고 보고하였는데, 미국 미시간주에 이주한 멕시코 계통의 농업근로자의 56%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한 Anthony 등(2008)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대상자의 한국어 능력은 남녀 모두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경우는 남자가 더 많았다. 한국어 능력수준은 한국에서의 성공적인 근로활동에 필수적인 요건이지만,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사용 능력은 매우 낮아 허현주(2001)의 연구에서도 한국어 능력이 일상 생활에 매우 불편할 정도라는 응답이 21.7%나 되어,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한국어를 못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여성의 경우 조선족 등의 중국동포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정부에서는 2005년 8월 17일 이후 선발되는 자는 한국어능력시험 통과를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유길상 등, 2005), 이는 취약한 언어소통의 문제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등과 관련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라틴계 건축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O'Connor 등(2005)의 연구에서는 영어를 못하는 이주근로자의 경우 안전보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언어능력이 안전보건교육에 중요한 요소임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모국어로 제작된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대상자 중 비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36.0% 이었으며, 남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2007년 기준 법무부 자료에는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13.6%라고 하였는데(법무부, 2008), 본 연구대상자는 법무부 보고보다 비자를 갖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직장을 옮긴 횟수가 평균 2.3회 이었는데, 남자의 경우 3회 이상 직장을 옮긴 비율이 32.0%나 되었다. 홍윤철과 하은희(1996), 김현리 등(2006)의 연구에서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수준에 따라 직장을 옮긴다고 하여 임금관련 요인이 이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남자에게서 직장을 옮긴 횟수가 많은 것은 체류신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 조사에서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 불법체류자가 더 많았고, 합법적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국내에 거주하기 위하여 직장을 여러 차례 옮기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직횟수가 많아지게 되면 업무에 익숙해지기 보다는 새로운 일에 적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재해 발생의 위험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일하는 사업장의 총 직원 수는 평균 183명 이었으며, 남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자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대상자의 80%가 남자인 기존 연구들에서도 대상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50인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최재욱 등, 1999, 황성호, 2006, 홍윤철과 하은희, 1996). 업종은 남녀 모두 제조업이 많았는데, 김성훈(2003)의 연구에서는 남자는 제조업, 여자는 서비스업에 많이 근무한다고 하여 본 조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0.2시간 이었으며, 남자의 근로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박달순(2004)의 연구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9.88시간이라고 하였으며, 김성훈(2003)의 연구에서는 34%, 이명희 등(1997)의 연구에서는 39.8%가 12시간 이상 일한다고 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월급여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성훈(2003)의 연구에서도 남자의 급여가 여자보다 많다고 보고하였다.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는 40.3% 이었고, 여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최재욱 등(1999)의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45.6%가 교대근무를 한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교대근무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육체적 부담은 힘들다고 한 경우가 64.4% 이었고, 남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2003)의 조사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작업강도가 힘든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주근로자의

건강과 의료이용에 대한 Pavlic 등(2007)의 연구에서는 이주근로자의 스트레스가 높다고 하였는데,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가 스트레스가 많고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경우 산재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조사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행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고, 여자가 남자보다 흡연과 음주를 하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았다. 체중은 남자들이 더 말랐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유의하게 많았다. 운동은 전혀 안하는 경우가 58.1% 이었고, 남자가 여자보다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았다. 박수만 등(2007)의 연구에서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27.6%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의 운동실천율이 더 낮았다. 아침식사는 거의 매일 먹는 경우가 83.9% 이었고, 남녀 모두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수면시간은 남자의 수면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자에게서 수면시간이 짧은 것은 남자의 경우 12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 44.9%에 이르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남자가 자신의 건강을 좀 더 건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완순과 최재욱(2004)의 연구에서는 67.3%, 박수만 등(2007)의 연구에서는 40.4%, 홍승권 등(2000)의 연구에서는 46.8%가 자신이 건강하다고 응답하였다. 본국에서의 건강상태와 비교했을 때 나빠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남자에게서 더 높았다. 정완순과 최재욱(2004)의 연구에서는 20.7%, 박수만 등(2007)의 연구에서는 41.7%가 본국에서의 건강상태보다 나빠졌다고 응답하였다. 과거질병은 없는 경우가 91.1% 이었으며, 남녀의 결과가 유사하였는데, 박수만 등(2007)의 연구에서는 79.6%가 과거질병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현재질병을 갖고 있는 비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았다. 박수만 등(2007)의 연구에서는 67.0%가 현재질병이 없다고 응답하여 본 연구대상자보다 높았다. 현재 질병 중 근골격계질환이 46.5%로 가장 많았으며, 남자의 51.9%, 여자의 25.7%가 근골격계질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여자는 소화기계질환이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홍승권 등(2000)의 연구에서도 남자에게 근골격계질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2003)의 조사에서는 근골격계증상을 경험한 사람이 63.0%이었으며, 위장질환을 경험한 사람은 79.5%라고 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체로 근골격계질환과 소화기계질환의 문제

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사대상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는 작업환경을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유해한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2003)의 조사에서도 21.2%가 조명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53.4%가 소음에 노출된다고 하였으며, 55.8%가 분진이 있다고 하였고,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정완순과 최재욱(2004)의 연구에서는 72.0%가 소음에 노출된다고 하였고, 71.7%가 분진에 노출된다고 하여,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소음과 분진에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완순과 최재욱(2004)의 연구에서는 45.8%에서 반복작업을 한다고 하여 본 연구대상자가 반복작업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2003)의 조사에서는 60.0%가 무거운 물건을 취급한다고 하였고, 38.1%에서 위험한 기계를 사용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홍윤철과 하은희(1996)의 연구에서는 23.8%가 작업장의 온도가 높거나 낮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조사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실태를 살펴보면, 건강진단을 받은 경험, 안전장치나 보호구 사용, 안전보건교육 이수 등의 항목에서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만 등(2007)의 연구에서는 35.7%가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고, 52.4%에서 안전장치나 보호구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홍윤철과 하은희(1996)의 연구에서도 36.9%가 건강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안전보건교육은 정완순과 최재욱(2004)의 연구에서는 44.2%, 박수만 등(2007)의 연구에서는 43.2%,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2003)의 조사에서는 39.9%에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에게서 안전보건교육 이수율이 낮은 것은 한국어 능력이 미숙하고, 여러 차례 직장을 이동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근무 중 다친 경험은 19.4%가 있다고 하였고, 남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2003)의 조사에서는 37.0%가 업무상재해를 입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박수만 등(2007)의 연구에서는 37.4%가 작업 중 다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에게서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언어소통 미흡으로 작업수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장시간 근로 등으로 피곤한 상태이며, 좋지 못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하은

회 등, 2002). 다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다친 횟수는 평균 2.0회 이었으며, 남자의 비율이 더 높았다.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2003)의 조사에서도 2회 이상 다친 경험이 있는 경우가 46.1%로 한 번 사고를 당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재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경우는 38.2% 이었고, 남자의 경우 본인부담비율이 여자보다 더 높았다.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2003)의 조사에서는 45.4%, 박수만 등(2007)의 연구에서는 41.3%에서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였다고 하여, 아직도 많은 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 중 재해를 본인부담으로 치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체류신분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불법체류자인 경우 신분노출에 대한 염려 때문에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화학물질 취급실태를 살펴보면, 화학물질을 취급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44.3% 이었다.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2003)의 조사에서는 31.2%의 응답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한다고 하여 화학물질 취급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의 36.6%, 여자의 60.0%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가 남자보다 화학물질을 유의하게 더 많이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급하는 화학물질로는 남자는 신나를 취급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17.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벤젠으로 6.7%에서 취급한다고 응답하였다. 여자는 알코올을 취급한다는 경우가 48.0%로 가장 많았고, 벤젠을 취급한다고 한 경우가 8.0% 이었다. 특히 벤젠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암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 지정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노동부, 2008a), 외국인 남녀 근로자에게서 취급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에 관해서는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연구가 없는 현실에서 남녀별 건강 및 직업적 특성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본 연구는 무료진료소를 방문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미 건강문제를 가진

근로자들이므로 응답결과가 과대평가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남녀별 비교는 동일한 조건에서 수행된 것이므로 남녀별 분석결과는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향후에는 남녀별 비교 이외에도 작업장의 규모나 업종 등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 및 직업적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수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화학물질의 취급여부만을 조사하였으나 앞으로는 화학물질 사용시간 및 사용량 등을 보다 면밀히 조사한다면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 및 직업병을 예방하는 데 보다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외국인 근로자를 남녀별로 구분하여 건강 문제, 작업환경 및 산업안전보건 실태와 화학물질 취급 현황을 파악한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무료진료하고 있는 서울, 경인, 충청지역의 진료소를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한국어로 조사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무료진료소에 배치되어 있는 통역원을 통해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방글라데시어 등으로 제작하였으며, 본 연구원이 직접 대상자에게 조사내용을 설명하고 인터뷰를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외국인 근로자는 총 413명이었으며, 이 중 남자는 274명(66.3%), 여자는 139명(33.7%) 이었다.

본 연구결과, 남자의 경우는 기혼의 고학력자가 많으나, 한국어 능력이 미숙한 경우도 많았으며, 직장을 옮긴 횟수가 많았고,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12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수면시간이 7시간 미만으로 수면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자신의 건강이 과거보다 나빠졌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고, 무거운 물건과 위험한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근골격계질환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교육을 받아 보지 못한 경우가 많으며, 한 번 재해를 입은 사람이 반복해서 재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는 미혼의 젊은 여성이 많고, 급여수준이 낮으며, 교대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근골격계 질환과 소화기계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여자의 경우는 남자보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남성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한국어에 미숙한 경우가 많고, 이직횟수가 많으며,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안전보건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장시간 근로와 수면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피로가 쌓일 위험이 높고, 반복적인 재해를 입는 경향이 있으며, 근골격계질환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물리적 위험에 대한 재해감소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여성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는 남자보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고, 교대근무를 많이 하므로, 화학적 위험에 대한 재해감소대책과 교대근무로 인한 건강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남성과 여성 외국인 근로자 모두 운동을 하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성훈 (2003). 천안지역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리, 김정희, 송연이, 이꽃매, 정혜선, 현혜진, 김희걸 (2006). 유해화학물질취급 외국인 근로자의 적응과정. 한국산업간호학회지, 15(2), 94-103.
- 김희걸, 현혜진, 김용규, 김현리, 정혜선, 김정희, 이꽃매, 송연이 (2005). 유해화학물질 취급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 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 노동부 (2008a)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www.molab.go.kr.
- 노동부 (2008b).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www.molab.go.kr
- 박달순 (2004). 외국인 근로자와 한국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반월·시화공단의 근로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만, 정혜선, 김용규, 이윤정 (2007).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보건관리 개선방안 연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산업안전공단 용역보고서.
- 박용우, 이행 (1997). 외국인 진료소 내원환자의 진료내용 분석. 가정의학회지, 18(2), 192-201.
- 법무부 (2008).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07년 12월호).
-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2003). 외국인노동자 직업병 실태조사 보고서.
- 유길상, 이규용, 박성재 (2005).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노동부 고용허가제 도입 1년 평가 세미나 자료집.
- 이명희, 박정일, 구정완, 임현우 (1997).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실태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대한산업의학회지, 9(2), 309-319.
- 이연심 (1996).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연구: 상담사례 내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완순, 최재욱 (2004).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 정혜선 (2003). 직장여성의 취업현황 및 고용특성. 직업과 여성건강 연구회 세미나 발표자료.
- 주선미 (1998). 외국인 노동자의 특성과 의료이용 실태조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재욱, 김정아, 김해준, 박종태 (1999). 한국일부지역의 이주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산업재해실태 조사. 대한산업의학회지, 11(1), 66-79.
- 통계청 (2008). 경제활동인구조사. www.kosis.or.kr.
- 하은희, 이승길, 최재욱, 홍윤철 (2002).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실태, 산업재해 및 건강실태. 산업보건, 166, 4-13.
- 한국산업안전공단 (2008).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자료 무료로 드립니다. 보도자료.
- 허현주 (2001).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실태와 생활적응 연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승권, 오상우, 임강은, 최경만, 조비룡, 허봉렬 (2000). 한국 일부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이용 실태와 상병 사망 양상의 조사. 가정의학회지, 21(8), 1053-1064.
- 홍윤철, 하은희 (1996).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실태 조사. 대한산업의학회지, 8(1), 1-14.
- 황성호 (2006). 서울·경인지역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

의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조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nthony, M., Williams, J. M., & Avery, A. M. (2008). Health needs of migrant and seasonal farmworkers. *J Community Health Nurs.* 25(3), 153-160.
- O'Connor, T., Loomis, D., Runyan, C., Abboud, dal Santo, J., & Schulman, M. (2005). Adequacy of health and safety training among young Latino construction workers. *J Occup Environ Med.* 47(3), 272-277.
- Pavlic, D. R., Brovc, M., Svab, I., Ahcin, J., & Slajpah, M. (2007). Attitudes to illness and the use of health services by economic immigrants in Slovenia. *Croat Med J.* 48(5), 675-683.

- Abstract -

The Health Status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Related to Gender of Migrant Worker in Korea

Jung, Hye Sun · Kim, Yong Kyu*
Kim, Hyun Li** · Yi, Ggodme***
Song, Yeon Ee**** · Kim, Jeong Hee*****
Hyun, Hye JIn***** · Yi, Yunjeong*****
Kim, Hee Gerl******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in gender related to

health status, occupational environmen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nd hazardous chemicals use of migrant workers in Korea.

Method: The survey was conducted in clinics that provided free healthcare services for migrant workers. Of the 413 respondents, 66.3% were males and 33.7% were females.

Result: In the case of male migrant workers, many worker were not fluent in Korean, had illegal status in the country, and had moved jobs frequently. There were many cases in which migrant workers worked in small-scale enterprises and worked long hours. Job stress score was high for many workers and they dealt with heavy materials and risky machines. Many workers had not received prope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education and those that were previously injured had repeated injuries. Among the female migrant workers, many worker received low salary and shift work was common. Many worker complained of gastrointestinal and musculoskeletal illnesses and treated toxic substances.

Conclusion: As a result, it will be necessary to focus on the strategies for decreasing occupational injuries from physical risk factors for males and from chemical risk factors for female migrant workers.

Key words : Migrant, Health status, Environment, Occupational health, Hazardous chemical

*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Sangji University
**** Munkyung College
***** Cheju National University
***** Gangwon National University
***** Seoul National University
***** Kyungwon University